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모두 발언

2019.5.15.(수) 10:00~11: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취약 차주들에 대한 지원에
정책적 노력과 관심을 한층 더 쏟아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경기가 위축된 지역의
서민, 자영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상환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저신용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의 연체율이
금년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동향을
업권, 대출 유형, 지역, 업종 등 세부 프로파일(profile)별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대출 유형-업권간 연계성과 취약부문 분석 방향에 대하여
참석기관 간에 논의하고자 하며,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II. 최근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

① 가계대출 건전성

먼저 가계대출의 경우

‘19년 1분기말 기준 연체율은 0.84% 수준으로
‘18년말 0.75%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1분기중 연체율 상승은

지난 연말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기저효과,

분기중 신규 연체발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편입니다.

* 소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

: (‘15.3월) 1.32 (‘16.3월) 0.95 (‘17.3월) 0.79 (‘18.3월) 0.77 (‘19.3월) 0.84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 여전업권의 연체율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유형별로는

여전사의 오토론·카드대출 등의

연체율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건전성 하락 요인에 대하여 세밀히 진단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13.3말	‘14.3말	‘15.3말	‘16.3말	‘17.3말	‘18.3말	‘19.3말
소금융권	2.12	1.73	1.32	0.95	0.79	0.77	0.84
- 은행	0.92	0.66	0.48	0.34	0.26	0.25	0.29
- 보험	1.22	0.96	0.71	0.53	0.48	0.56	0.61
- 상호금융	4.48	3.77	2.91	1.84	1.40	1.38	1.57
- 저축은행	13.4	11.8	8.08	6.77	5.24	4.81	4.56
- 여전사 ^{주)}	3.57	3.55	3.14	2.74	2.70	2.81	3.15

주) 여전사의 경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의 연체채권 및 대출채권 잔액 포함

②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의 경우

‘19년 1분기말 현재 0.75%로

‘18년말(0.63%)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체율 수준은

예년 평균(‘15.3월~‘18.3월, 0.74%)과 유사하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 조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15.3월) 1.09 (‘16.3월) 0.69 (‘17.3월) 0.61 (‘18.3월) 0.58 (‘19.3월) 0.75

최근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① 금융회사들이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을

가파른 속도로 늘리는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하게 이루어졌고,

시차를 두고 부실이 현재화되기 시작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② 또한, 지방 소재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난 점도

전체적인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지방소재 금융회사 연체율(‘18년말→‘19.3월말, %)

▶ 은행 : (쏜은행) 0.32 → 0.38 (지방은행) 0.58 → 0.69

▶ 저축은행 : (수도권 소재) 3.70 → 3.85 (지방 소재) 6.12 → 7.75

▶ 상호금융 : (수도권 소재) 0.90 → 1.29 (지방 소재) 1.65 → 2.40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 자본비율(‘18년말, %) : (지방은행)15.4 (상호금융)8.1 (저축은행)14.4

III. 향후 대응방향

① 대출 건전성 관리

무엇보다도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대출 취급은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느슨한 여신심사 관행 하에
대출 취급액을 늘릴 경우
시일이 지나 부실이 현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에 걸맞는 여신심사 관행 확립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선택임을 인지하고,
DSR, LTI, RTI 등 대출 규제를 준수하면서
자체 여신심사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DSR의 경우 금년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DSR 관리기준은 각 업권별 차주의 특성, 대출 유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연하게 관리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취급기준과 관련된
RTI, LTI의 경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금융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 대출, 신·기보 맞춤형 보증지원 등
** 특별경영안정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대출만기 연장, 특례보증 등

② 취약·연체차주 지원 및 채무조정 활성화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작년 1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연체차주 등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①사전경보체계 구축 ②원금상환 유예 ③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등
** 금융권 자율채무조정 지원실적 : ('18.1분기) 8.8만건 → ('18.4분기) 14.6만건

필요한 지원이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안내·운영 실적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복위의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19.2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4월부터 상각채무 감면율을 상향조정(최대 60%→70%)했고,
연체우려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유예(6개월)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도입('19.8월 예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대상을
가계대출 차주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가계·자영업자 대출 취약요인 및 연계성 통합분석' 실시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금융위, 금감원, 신용정보회사 등이 함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세부 유형별로
취약요인 및 상호연계성을
세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①종래 부실화된 대출의 이력을 추적하여
대출의 어떤 특성이 부실화를 야기하였는지 점검하고,

②경기민감도가 높거나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큰 대출 유형을 식별하고자 합니다.

③또한, 다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와 같이
대출유형-업권 간에 리스크를 전파시킬 수 있는
연계고리를 분석하고 위험전이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분석 작업이 완료될 경우,
지금까지의 업권별, 대출별 평면적 접근을 넘어
부채의 상호연계성을 감안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해지고,

감독 측면에서도 취약 부문 및 부실 전염경로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잠재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IV. 마무리 말씀

가계 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은 동질성이 높고
다중채무자 등을 매개로 연계성이 높습니다.
대출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상당한 만큼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권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수준이
위기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되더라도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핵심 책무는
시장으로부터의 위험신호(signal)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인 대비를 통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연계성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approach)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대출 관련 동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주시고,
특히, 간과되어 온 위험요인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금융연구원은 현 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연계성 분석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